



# 연수의 새 모델 만든다

## 경남교육연수원, '주경야독토' 찾아가는 방과후 중등 독서교육 직무연수 인기

경남교육연수원(원장 안상문)은 2016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형태의 현장 발착형 '찾아가는 방과후 중등독서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교육청 역점사업이며, 최근 "이제부터 나는 독서·도서관 교육관으로 불리고 싶다."고 한 박중훈 교육감의 독서교육 의지 표명과 때를 같이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현실적 여건으로 학교 현장의 "책 읽기 문화 조성"은 쉽지 않았다. 특히 독서교육을 주도해야 할 교사들의 독서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도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경남교육연수원에서는 연수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학기 중 수업 결손, 연수 접근성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집합연수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내를 4권역(창원권, 진주권, 김해양산권, 통영 거제권)으로 나눈 다음, 7개 연수 장소를 마련하여 10월말~12월 중순까지 주중 방과후 시간과 토요일을 활용하여 학습 중심의 30시간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또 연수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권역별 우수강사 지원은 물론 독서토론 직무연수에 필요한 도서 및 연수여비 등을 교육연수원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 연수는 독서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일과 중에는 수업에 전념하고, 주중 방과후 시간과 토요일을 활용하여 독서·토론 학습연수에 임한다는 뜻으로 '주경야독토(晝耕夜讀書)'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현장 중심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어서인지 신청자가 많이 연수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중등교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현재 7개반(반별 12명 내외) 86명으로 운영되는 이 연수는 주중 수업을 마친 교사가 매 주 지정 요일 오후 8시부터 9시(1일 3시간)까지 반별 연수 장소에서 열린 독서활동 및 독후 토론연수를 학습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수 장소는 7곳에 분산되어 있는데, ▲창원권역(1,2반)은 경남교육연수원 대회의실, 마산삼계초 도서관이며 ▲진주권역(3,4반)은 진주교육지원청 중회의실 및 세미나실 ▲김해양산권역(5,6반)은 김해도서관 구 지부실, 김해대청고 도서관 ▲통영거제권(7반)은 통영대학교 도서관이다.

또 직무연수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경남교육연수원에서는 정기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 정보교환 및 소통을 위해 '행복한 책읽기'를 위한 경상남도 독서토론 배움나눔 한마당'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수활동 모습은 카페에 가입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중등교사 독서·토론 리더 양성"을 목표로 설계한 이번 연수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역여건에 맞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30시간)된다. 이번 연수 과정은 "기본과정"이며, 내년 3월부터는 "심화과정" 개설이 예정되어 있다. 연수가 종료되는 12월 17일에는 전 권역의 연수생들이 경남교육연수원에서 함께하는 권역별 활동 성과 발표를 겸한 기본과정 수료식이 개최되어 있다.

담당연구사에 따르면 "이번 연수 과정을 이수한 교사에게는 경남교육연수원장 명의의 '독서·토론 교육 리더 인증서'가 수여되며, 이후 본인의 소속 권역에서 소단위 독서교육 직무연수를 주도하는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수 참석자인 김성준 교사(거제제일고)는 "창원에서 연수원이 있어 연수 참여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 거제통영 지역에도 연수가 개설되어 참으로 좋다. 특히 주중 방과후 시간에 진행되는 연수여서 수업 결손도 없고, 학습 중심 독후 토론활동은 독서교육의 취지에 잘 맞아 모두들 보람을 느끼고 있다. 현재까지 연수 지정 시간 내 연수를 마친 적이 없을 정도로 독서·토론의 열기가 뜨겁다"고 독서교육 연수 참석으로 인한 행복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중등 연수를 총괄하고 있는 김병희 부장(교육정책개발과)은 "우리 연수원에서는 최근 3년간 최우수 교육연수원의 위상에 맞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중등 독서교육 직무연수도 이러한 변화 의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현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이번 독서교육 직무연수의 의미를 평가했다.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중훈)은 11월 28일 창원 어울림센터에서 역사교육공동체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중훈 교육감, 남재우 교수(창원대 사회과), 김경현 경남역사교사모임 회장 등 현장 역사교사와 경남교육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중훈교육감은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 학계 및 역사교사와 의견을 교환하며 올바른 역사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내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1948년 8월 15일을

# “임시정부 정통성 외면 건국 시점 가장 심각”

## 박중훈교육감, 역사교육공동체 간담회 통해 현장의견 수렴

대한민국 건국을 기술했던 것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 3월 1일 삼일운동과 이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은 재현현법 전문과 이승만대통령 기념사에 명시돼 있어 현재 역사학계의 정설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 유지돼 온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한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역사학계의 의견 수렴, 집필기준 공개, 공청회 및 토론회가 없었던 데 대해 대다수의 참가자가 강하게 비판했다.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속의와 합의의 과정

을 거치지 않은 이러한 독선적 행적은 필연적으로 특정사관에 편향된 국정 역사교과서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미래세대와 교육,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역사교사들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하여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점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요청했으며 박중훈 교육감은 각종 연수 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상남도교육청과 참가자들은 12월 중으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교사들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대한 공대응을 확산해 나가자는 데도 합의했다.



# 신나는 영어연극 한마당!

## 제8회 밀양 영어연극 페스티벌 개최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은익)과 극단 마루(대표 박현배)는 29일 10시부터 17시까지 밀양연극촌에서 관내 초등학교 9개교가 참가한 가운데 '제8회 밀양 영어연극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밀양 영어연극 페스티벌은 밀양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 단체인 극단마루가 함께 추진하는 행사로 다양한 소재를 영어연극으로 만들어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과 표현력 및 발표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상상력 및 자신감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사이다.

올해로 제8회를 맞이한 영어연극 페스티벌에는 미리별초, 밀주초, 부북초, 신외초, 신남초, 예림초, 수산초, 청도초, 삼양초가 참가하였으며, 늘푸른·백실공주·퀵릴과 그레티 등 친숙한 내용을 영어로 각색한 작품

으로 열린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에 참가한 한 학생은 "5월부터 영어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어연극을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영어공부가 더 재미있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는 자신감과 발표력도 향상되었다. 내년에도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장문의 교육장은 "영어연극 페스티벌을 통해 밀양 학생들이 평소 갖고 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경험을 가지게 되어 뜻깊은 행사였다. 우리 학생들이 한편의 연극을 완성하기까지 친구들과 함께한 과정을 소중히 기억하며 더불어 사는 힘을 기를 시간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창원귀암중,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행

경남 창원시 귀암중학교(교장 최태원)는 11월 15일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사(홍성남) 초청 진로탐색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의사 직업을 갖게 된 동기,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의사 제련담, 의사로서 보람 있었던 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등에 대해 1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강사로 초빙된 홍성남 의사(창원실상병원 건강검진센터)는 지난 9월 한의사 초정특강을 한 구암 지역 초등생 홍한익同学的 누나로 홍 원장과의 교육기부 활동에 영향을 받아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기부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홍성남 원장은 작년부터 귀암중학교와 교육기부 협약식을 맺고, 2년째 구암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특강과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홍성남 의사는 "교육기부 활동으로 진로 탐색을 처음 했는데, 학생들이 의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진로탐색에 대한 자제가 진지하여 놀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부 활동에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학생들과 소통하고,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구암중학교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1학년 조민성 학생은 "자유학기제를 맞아 한의사, 의사, 군인, 심리학과,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진로특강을 듣고,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게 되어 좋았다"며 연극도 특강이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 경남 특성화고 우수 학생들, 글로벌 문화체험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중훈)은 농림중앙회 경남지부 지원으로 전국농농학생 진전대회 수상자 10명, 전국기능대회 및 상업대회 수상자 10명 등 특성화고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21~28일 6박7일간 뉴질랜드에서 글로벌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글로벌 문화체험은 뉴질랜드의 대표적 양양장 중 하나인 이그로브 농장, 양액체 배와 컴퓨터 시스템으로 유기농 농업을 하고 있는 Southern Belle orchard 농장, 세계 2

차 대전 때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든 레드우드 숲 등을 체험했다.

이번 글로벌 문화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뉴질랜드의 선진농업과 글로벌 문화를 체험했으며 특화고등학교의 기능 우수자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김호기기자 khh@

판백나무 원목교구 정밀블럭 www.u2to.kr

# 싱킹블럭

두뇌개발교육, 집중력향상, 창의력개발, 균형감각 발달, 집중력향상, 심리적인 안정을 높여줍니다. (주)가야지엔이 ☎ 02)866-8921, 055)242-8921

제품명	규격(mm)	세일	가격	S2B 물품번호
대형 블럭	도크 : 100 x 100 x 100 (300개) 유아 : 50 x 50 x 50 (300개)	판백나무, 세스 : 가야지엔이	680,000원	201602310402686
중형 블럭	도크 : 50 x 50 x 50 (300개) 유아 : 25 x 25 x 25 (300개)	판백나무, 세스 : 가야지엔이	770,000원	201602310402701
작형 블럭	도크 : 25 x 25 x 25 (300개) 유아 : 12.5 x 12.5 x 12.5 (300개)	판백나무, 세스 : 가야지엔이	298,000원	201602310402707
집합 블럭	도크 : 300 x 300 x 300 (100개) 유아 : 150 x 150 x 150 (100개)	판백나무	220,000원	201602310402774
12칸지 블럭	도크 : 300 x 300 x 300 (100개) 유아 : 150 x 150 x 150 (100개)	판백나무	180,000원	201602310402778